

## 롯의 이농과 아브람의 귀농

-창 13:14-15-

이 영 재(목사, 전주 화평교회, 구약학 Ph.D)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창 13:14-15)

### 들어가는 말

아브람의 소명은 귀농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아버지 데라는 본디 수메르 남부 갈대아 지방의 대도시 우르에 살았다. 대도시 우르를 떠나서 북방의 중소도시인 하란으로 이사하였다. 맏아들 아브람도 아버지를 따라 갔고 이 때 조실부모(早失父母)한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이사하였다.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주한 것이다. 아브람이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이란 도성에서 정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

하나님은 하란이란 도시를 떠나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은 아브람은 즉시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버려두고 도시를 떠났다. 어디로 가라는 지시도 없었으므로 무작정 ‘땅’을 향하여 떠났다. 아브람 일행은

레반트 지역의 통상로를 따라 서남쪽으로 가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창 12:5). 도시의 삶을 버리고 들녘의 삶으로 귀농한 것이다. 롯도 삼촌 아브람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농했다. 귀농한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12장은 귀농자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은 두 귀농자가 결국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준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두 구절을 앞뒤 문맥에 비추어 보고 또 본문 자체를 꼼꼼히 읽어 보려고 한다. 물론 문맥 자체는 귀농과 이농이라는 동선을 깔고 있다.

## 아브람과 롯의 처량한 귀농

두 사람의 귀농자는 가나안 땅에 당도하였으나 그곳은 이미 가는 곳마다 땅 주인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창 12:6).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야베헤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창 12:7)”라고 약속해주셨다. 그러나 지금 당장 땅이 필요할 때인데 지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시겠다고 약속만 하신다. 아브람은 그 약속을 받들고 세겜 땅 ‘엘론 모레’(모레 상수리나무)란 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귀농은 하였으나 정주할 땅이 없다.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이 다 선점하고 있었다.

‘가나안 사람’은 누구였기에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을까? 창세기 10장에 가나안 사람들이 소개되어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헛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고임>대로였더라”(창 10:15-20). 새번역은 <고임>을 ‘부족’이라고 옮겼다. 함의 자손들은 애굽 땅과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 지역과 아시리아와 바빌로니

아 지역 전체에 퍼져서 땅을 차지하고 도시들을 건설하고 더 나아가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로서의 제국을 건설하였다(창 10:10, 국가=마블레케트). 그들 중에서 열 부족은 요단강과 사해 주변에 정주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과 같은 도시국가들을 건설하였다. 후일 세겜이란 도시국가도 이들에 의해서 건설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높은 성벽을 쌓고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하였으며 도성 주변의 토지들을 자신의 영토로 복속 시켰다. 민수기에 의하면 그 땅은 영웅들이 세운 도성들로 인하여 온통 요새화되어 있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큼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자손도 보았습니다”(민 13:28, 새번역). 아말렉 족속<고임>은 네겝 지방에 살았고 헛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살았고 가나안 족속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었다(민 13:29). 도시가 하나 생기면 인근의 온 토지는 모조리 그 도시국가의 영토로 귀속되었고 농부들은 그 도시국가의 농민으로 복속되었던 것이다.

아브람이 귀농하려고 내려갔으나 가나안 땅은 이미 도시국가의 주민들이 점령하고 있어 밭 디딜 틈조차 없었다. 아브람과 롯은 세겜 도시국가의 영토를 떠나서 벨엘 도시국가의 영토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나마 벨엘과 아이라는 도시들의 틈바구니에 잠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야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귀농에 성공하려면 그곳의 도시국가에 신고하고 한 국가의 농민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브람은 농민이 되는 길을 택하지 않으니 결국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자꾸만 남쪽으로 옮겨가야 했다. 남쪽에는 네겝 사막이 있었고 그곳에는 아말렉 족속이 선점하고 있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가뭄이 극심하여 아브람과 롯은 마침내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여 먹고 살려고 내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브람과 롯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귀농할 땅이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아브람은 땅 한 켠이라도 소유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귀농하라고 명령만 하시고는 아브람에게 땅도 주지 않으신

다. 땅을 준다고 말씀은 하시나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만 하신다. 세겔을 주신다고 했으나 후일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야 세겔을 주셨다(수 24장). 하지만 아브람은 오직 야훼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고 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창조주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지냈다.

## 아브람과 롯의 절망적인 이농

아브람 일행이 정주하기 못하고 유랑하는 중 설상가상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닥쳐 기근이 들었다. 먹을 것이 없었다. 남쪽 애굽에는 곡식 창고가 있어서 가뭄에도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었다. 아브람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귀농하였으나 토지도 가질 수 없었다. 농사도 없는데다가 가뭄까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이 다시 도시로 들어가야 했다. 도시에는 양식을 구할 수 있었다.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도시에는 기술문명으로 재난에 대비할 줄 알았다. 농사기술도 발달하여 식량을 증산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신 11:10).

‘애굽’은 히브리어로는 <미츠라임>이라 표기한다. <미츠라임>은 애굽의 도시국가를 가리키는 명칭이었다. 미츠라임에 들어가는 아브람은 몹시 불안했다. 왜냐하면 애굽의 도시인들은 폭력을 휘둘러서 나그네를 겁박하며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그 남편을 죽이고 여인을 탈취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사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므로 그 남편 아브람은 겁에 질려 있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서 귀농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이농하여 다시 미츠라임 도성으로 들어가 살려고 했으나 도시민들은 모두가 폭력에 능란한 사람들이었다.

과연 파라오의 신하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궁으로 데려갔다. 아브람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사례도 남편을 오빠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다. 파라오는 막대한 예물을 지불하고 아내 사례를 후궁으로 데려갔다. 혼인예물로서 금과 은과 노비와 가축을 잔뜩 얻어서 떠나려는 아브

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래를 구출하셔서 아브람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었다. 이상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 내용이다.

## 아브람과 롯의 두 번째 귀농

도시의 폭력문명 가운데서 적응하지 못하고 아브람 일행은 다시 귀농의 여정에 오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야훼 하나님 덕분에 큰 재산을 얻어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많으니 자연 가축도 많아졌다. 한정된 땅에 아브람의 가축 떼와 롯의 가축 떼가 풀을 뜯어먹으니 초지가 부족하였다. 이에 양가의 목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잦았다. 농사일이 많아지면서 삼촌과 조카의 집안에 분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에 아브람은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한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려면 사유재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했다. 사유재산을 확 줄여서 공동의 재산으로 관리하였더라면 다툼이나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삼촌과 조카라는 한 혈육이 아니었던가? 큰 가뭄을 겪고 도성으로 이농했다가 다시 귀농한 처지라 재산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 기반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러기에 두 사람은 사유재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브람이 롯 더러 떠나는 우선권을 주었고 롯은 물질의 풍요를 찾아 소돔 도성으로 들어가 살았다. 롯이 이농하여 도시로 이주하기 전에 야훼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류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중에 소돔 도시는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에 야훼께서 오셨더라면 롯은 망하는 도시와 함께 스러지지 않았을 터인데 말이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누가 어디로 가는지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땅을 딛고 들판에 남아 있는 아브람에게 다가 오신다.

## 롯의 이농과 아브람의 귀농

롯은 또 다시 이농하였다. 롯이 떠나고 난 후에 아브람은 귀농한 그대로 들만에 남아 있었다. 땅을 지키고 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 오셨다. 롯을 보낸 아브람은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그는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가나안의 도성들 바깥 한적한 들녘에서 혼자서 쓸쓸하게 생활하게 되었다. 아브람에게 중요한 것은 도성의 물질문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욱 분명히 깨우침으로써 올바르게 사는 길을 체득하는 것이 아브람에게 더욱 중요하였다. 이처럼 쓸쓸하게 광야에 서 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다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처음에는 하란을 떠나라고 명하셨고(창 12:1), 두 번째는 세겔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렀을 때였고(창 12:7), 세 번째로는 벨셀과 아이 사이, 곧 두 번째 말씀하신 직후에 제단을 쌓은 곳에서 말씀하셨다(창 13:3, 14). 하란을 떠나라는 것은 귀농하라는 명령이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동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물질을 소출하는 농토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의 물질 중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 어느 농토에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오직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분을 사랑하는 길이 농자(農者)의 길임을 아브람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현현의 장소들은 모두 가나안 땅 중북부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소는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인 데(창 15:1; 14:13), 이곳은 헤브론 근처이므로 가나안 남부 지역이다(창 24:19). 이후로는 모두 남부 지방에 현현하셔서 말씀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헤브론 상수리나무 수풀에서 야훼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였고 다섯 번째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다(창 17:1). 그 후 소돔 도시를 심판하러 가시는 야훼께서 동일한 장소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여섯 번째이다(창 18:13, 17이하).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할 때 하나님(엘로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곱 번째 말씀하셨다(창 21:12). 또 모리아 산상의 시험이야기에서 야훼께서 말씀하셨으니

(창 22:16) 모두 여덟 번째 말씀하셨는데 일곱 번째의 경우에는 신명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야훼’라고 되어 있다. 야훼께서 현현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모두 일곱 차례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일정한 신학사상을 더듬어 볼 수 있다. 참된 농부는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만남과 모든 생명을 품는 보편주의 영성으로 치달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모든 농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 귀농에서 정주로

롯이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시점은 ‘롯이 떠난 후’이다. 롯은 자기 자신과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삼촌 아브람을 버리고 떠났다. 그는 물질번영을 피하여 세상의 도성문명 속으로 떠나갔다. 이농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아브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제일로 여겼다. 일찍이 갈대아 우르 도성에서 이끌 어내시고 바단아람의 하란 도성에서 불러내신 야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귀농하여서도 야훼만을 예배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였다. 그는 하란 도성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모레 상수리 수풀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벤엘과 아이 사이에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고, 그 후로 늘 야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다짐해왔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염려도 없었다.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의 물질을 취득하려는 탐심도 없었다. 조카 롯에게 물질번영의 선택권을 양보하고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 살려고만 결심하고 있었다.

이농한 롯은 소돔 도시에 들어가 살다가 큰 전란에 휩싸인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전쟁포로로 끌려간다. 그 때 아브람은 그돌라오멜 연맹군을 맹추격하여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 온다. 창세기 18장에는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를 만났을 때 아브람은 소돔성에 의인 열 명이 있으면 살려달라고 롯을 염두에 두고 중보기도를 올렸다. 소돔성이 멸망했을

때 아브람은 먼 곳에서 치솟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다(창 19:28). 아브람은 조카 롯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였다. 그러나 롯은 끝내 삼촌 아브람에게 돌아오지 않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세상길로 가고 말았다. 도시문명을 한 번 맛보면 롯처럼 중독되어서 그 도시가 멸망할 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된다. 롯이 아브람을 떠났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모든 땅을 줄 것인데 자손 대대로 그 땅에 살 것이다.”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위의 땅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믿는 마음으로 토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익숙히 보아오던 그 땅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은 남의 땅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땅이 다 주어질 것이다. 믿음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땅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일구어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솟구쳐 오를 것이다(창 2:15). 참된 농부의 마음과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땅이 영영토록 주어질 것이다.

아브람이 생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적은 없었다. 단지 막벨라 동굴과 그 주변의 토지를 장지로 매입했을 뿐이었다. 그가 살게 된 브엘세바란 땅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허락을 받아 정주지로 사용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땅 약속은 아브람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의 후손인 여호수아 시대와 다윗왕국의 시대에 성취되었다. 따라서 ‘너의 자손에게’란 어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묵상해보면 땅 약속이 사유지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 땅 약속의 진의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땅은 본디 생명이 넘치는 상태에 있었음을 창세기 1-2장은 보여주고 있다. 땅의 회복! 이것이 땅 약속의 참된 의미이다.

## 나가는 말

귀농과 이농이 엮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아브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귀농하여 마침내 정주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귀농을 하여 땅을 물질소유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장(場)으로 보게 되었을 때 아브람에게 땅의 영유권이 주어진다. 물질문명을 찾아서 도시로 이농하여 들어간 롯의 운명은 도시문명이 멸망할 때 덩달아 망하는 비운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여 땅에 남아서 땅을 가꾸며 땅에 생명을 부여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씨름하는 아브람에게는 모든 땅의 영유권이 주어졌다. 오늘날 모든 땅의 참주인은 누구인가? 상업주의 농사에 물들지 않고 생명살림이로서 땅심을 일구는 참 농사꾼에게 온 땅의 운영권이 주어졌음을 성경을 선포하고 있다. 農